

- 해외지역정보 -

네팔, 정부 해산 후 비상사태 선포로 정국 혼미

국별조사실

□ 국왕, 정부 해산 후 비상사태 선포

- 가넨드라 네팔 국왕은 지난 2월 1일 정부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 하였으며, 이후 스스로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1990년 이래 유지되었던 의회군주제¹⁾는 잠정 폐지됨.
- 국왕은 정부의 해산 이유로 데우바 총리 내각이 4월까지 총선을 실시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공산 반군²⁾의 봉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국왕의 권력 장악 의지가 근본 원인인 듯

-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와는 달리 정부 해산을 통해 가넨드라 국왕이 명목상의 군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전권을 직접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임.
- 2002년 10월 이후 국왕이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때마다 행정부를 통하는 과정을 거쳐 국왕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난을 피해 왔음.

1) 네팔은 1959년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국가체제가 확정되었으나, 이후 억압 정치가 지속 되어 1990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90년 11월, 신헌법에 의해 국왕을 명목상의 국가 원수로 하는 상하 양원제가 정착되었음.

2) 중국의 마오쩌둥이 주창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1966년에 조직되어 1996년에 인민전쟁 (people's war)을 선포함. 초기 6개 지역에서 시작된 인민전쟁은 현재 네팔 75개 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이며 군주제의 철폐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목표로 하는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로 지금까지 약 1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नेपाल 정치는 국왕, 의회내 정당, 공산 반군의 세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며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불안정성이 증대됨.
- 가넨드라 국왕의 이번 조치는 즉시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힘. नेपाल 국내 정당들은 정부 해산이 위헌이며 쿠데타적인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UN과 미국, 영국 등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함.
- 특히 नेपाल과 인접하여 있고 नेपाल 정치·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가 강한 우려와 비난의 뜻을 표명하고 있음.

□ 최근 공산 반군과의 충돌 격화

- 공산 반군과의 평화협상은 담보 상태에 있으며, 최근 군사적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반군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 현재 नेपाल의 3분의 2 지역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반군 세력은 지난해 8월과 12월 수도 카트만두로 통하는 도로 봉쇄를 통해 도시를 고립시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음.
- 반군의 세력 확장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인도의 경우 자국내 공산주의 무장세력이 नेपाल 공산반군과 연대를 형성하여 거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같은 군주국인 부탄도 반군 세력의 확장이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 향후 가넨드라 국왕은 군부 이외엔 지지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각 정당들과 공산 반군의 저항에 맞서야 하는 상황으로,

네팔의 최대정당인 Nepali Congress가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입헌 군주제 지지 입장을 철회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가넨드라 국왕의 의지가 성공하려면 인도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인도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이며, 가넨드라 국왕이 이번 사태를 무난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군주제 자체가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
- 또한, 네팔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치적 불안정 고조로 당분간 원조 제공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서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연구원 양동철 (☎6662)